

□ 호주 유통동향

○ 유통업계는 호주에서 가장 큰 고용 창출을 이루고 있으며, 노동인구의 12%인 92만명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음. 유통업계 대부분은 20명 미만의 직원만을 고용하고 있으며, 대형 소매점은 주로 의류와 섬유 판매자와 슈퍼마켓, 식료품점, 백화점이 있음

< 호주의 식품 시장의 개념도 >



출처: 연방 농림 수산

○ 호주연방농림수산부가 발표한 ‘식품 시장의 유통 구조에 관한 보고서’에 의하면, 식품의 52%가 소매 부문의 슈퍼마켓, 35%가 푸드 서비스 부문(레스토랑, 카페 등 외식 산업, 음식, 테이크아웃, 회의, 호텔 등)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남

- 식품유통 부문에서 소매대형 소매체인(FSS)인 Woolworths와 Coles가 약 7~8%를 과점하고 있음

- 리서치 회사인 AC 닐슨에 따르면, 주류를 제외하고 FSS가 슈퍼마켓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%에 이르고 있음

- 호주 통계청(ABS)은 주류를 포함한 경우의 FSS의 매출이 450억 달러로 74.5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

- 소매 업계의 과정을 둘러싸고, 생산자는 싼 가격에 공급,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입을 강요하며 2개 社가 부당하게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

- 과정의 움직임은 슈퍼마켓 업계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. 호주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음

- 첫째, 호주는 미국 본토와 유럽에 맞먹는 넓은 국토에 약 2,240만명의 인구만이 거주하고 있음. 이렇게 적은 인구가 해안도시로 집중되어 있어 인구 분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. 또한 주요 도시 간의 거리가 각각 약 1,000 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 비용이 높음

- 둘째, 국내 경제의 호조를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 역대 노동당 연방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가 극진 보호되어있는 것도 있고, 인건비가 높은 편임

- 셋째, 1개의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데다가, 운영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금력이 윤택한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쉽고, 시장의 지배를 가속시켜 나가는 구도

○ 아시아 식품의 유통

- 아시아 식품의 판매는 슈퍼 등 소매와 주로 아시안 식당을 위한 도매가 있으며, 소매는 크게 나누어, Woolworths와 Coles 대형마트의 아시아 식품 매장과 아시아사람 거주자가 많은 시드니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식료품 전문 슈퍼마켓이 있음

- 아시아 식료품점은 개인 경영의 소규모 업체가 많지만, 그 중에서 중화계의 미라클(Miracle)이 시드니 시내에 6개의 대형 점포를 운영하면서 최대 규모를 자랑

○ 유통 산업 트렌드

- 최근 몇 년간, 대형 식품소매회사는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독립 체인들을 합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. 전통적인 수입업자들과의 거래를 자신들이 직접 함으로써 급속도로 큰 수입업자가 되기 위한 것도 이러한 합병

○ 전략의 요인

- 2009년 코스트코는 멜버른에 첫 번째 상점을 오픈 했으며 2011년에는 시드니에 새 점포를 열 계획임. 모든 슈퍼마켓 체인들은 각각의 주마다 중앙 창고를 가지고 있으며, 각 점포의 집중 도에 따라 하부 창고 또한 보유